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치과인 문화제행사 결드려

○ 6. 9 ~ 21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 회화부문 : 100여점, 서예부문 : 40여점, 도예, 사진 등 출품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치과인 문화제는 예상과는 달리 그 출품된 작품의 질과 양으로보나 관객수로보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치과인의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판을 받고있는 전시장에는 치과인이 아닌 일반관객의 상당수가 전시장을 찾았다는점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발전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면은 또다른면에서 치과인의 숨은 자질이 발굴될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尹興烈 서치회장의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취지를 되새겨본다.

## 인사의 말씀

치과의사의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의 다양함을 밖으로 나타내기에는 즐거움과 함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정된 공간인 진료실에서 항상 완벽하고 친절한 의료시혜를 해야되는 심신의 과중함만큼 치과인의 정신세계는 낭만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제 1회 「치과인문화제」는 작은 시작으로서 미술·서예·사진 등 작품을 모아 보았으나 앞으로는 합창·연극·음악행사 등으로 치과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군데 합치는 잔치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작품을 내 주신 분, 준비중에 계신 분, 사양하신분을 비롯해 처음 시작한 이 행사에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애쓰신 모든 치과인께서 보람된 일이었다고 큰 소리로 웃으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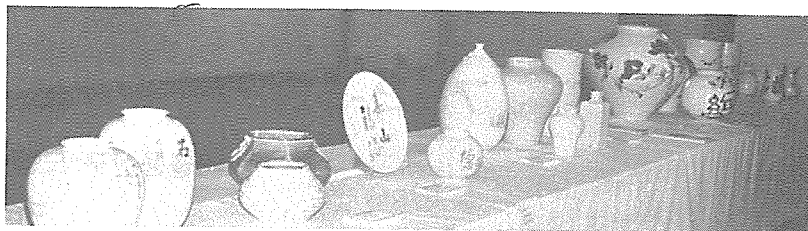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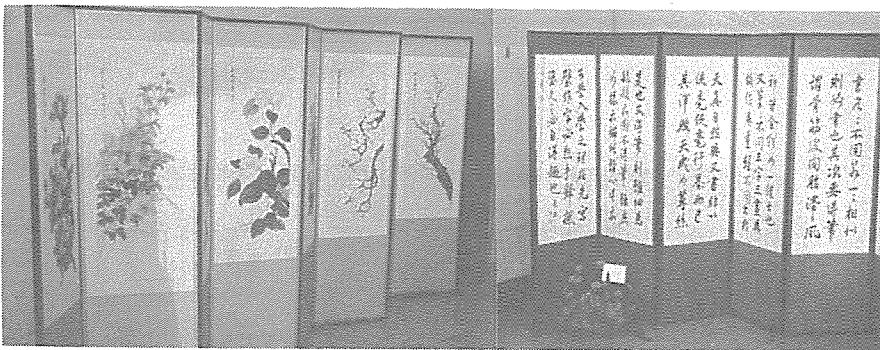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치과인 모두의 행운을 다시금 진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 장 윤 흥 열



〈제 1회 치과인 문화제 전시장에서 기념테이프를 끊고있다〉

(좌로부터 金鴻基, 閔丙一, 劉東洙, 金明國, 金東順, 尹興烈, 申旻澈, 奇昌德, 李春根, 李勝雨先)



〈수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주취측은 물론 참관하는 치과인도 흐뭇해했다〉